2020년 12월 04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추가 부양책 기대 속 종목 장세

화이자의 백신 공급망 우려 부각되자 지수 상승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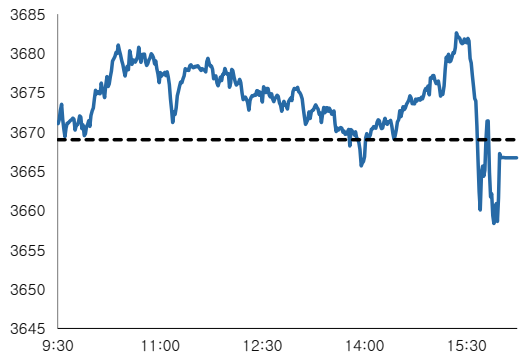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추가 부양 기대 지속

미 증시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보합 출발, 이후 개별 기업들의 재료에 따라 변화하며 상승하기도 했음. 특히 다우는 보잉(+5.96%) 효과로, 나스닥은 테슬라(+4.32%) 효과로 강세를 보임. 더불어 의회의 추가 부양책은 셰일 오일, 항공, 레저 업종의 강세를 이끔. 다만, 코로나와 독점 규제 이슈, 화이자 공급망 우려는 부담(다우 +0.29%, 나스닥 +0.23%, S&P500 -0.06%, 러셀 2000 +0.58%)

전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초당적 의원들이 제시한 9 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기초로 합의안을 제시하며 의회의 합의 가능성을 높임. 이런 가운데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올해가 가지 전 부양책 타협은 가능하고 희망적인 신호를 봤다" 라고 주장하며 기대를 높임. 최근 맥코넬은 9 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5 천억 달러의 계획을 강요 했으며 전일 트럼프도 맥코넬 안에 찬성을 표한다고 발표. 그러나 오늘은 합의 기대를 높이는 발언을 한 점이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 일부 위원들은 공화당이 5,500~7 천억 달러 규모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며 긴급 패키지 형식으로 다음주에 통과 될 것이라고 주장. 트럼프도 장 후반 부양책 합의를 지지. 결국 의회는 12% 이상의 국민들이 굶고 있다는 소식과 기업들의 파산 급증으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추정.

한편, 다우 30 에 포함되어 있는 보잉(+5.96%)은 유럽의 라이언에어가 737 맥스 75 대를 추가로 주문하자 급등하며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끔. 나스닥의 경우는 테슬라(+4.58%)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을 주도. 골드만삭스는 가솔린 차량 판매 제한 규제 강화 및 배터리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의견과 특히 목표주가를 455 달러에서 780 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강세를 보임. 그러나 페이스북(-1.97%)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될 것이라는 소식으로 약세를 보이자 대형기술주는 약보합권을 보이며 지수 상승을 제한. 더불어 미국 코로나 입원 환자가 10 만명을 넘어서자 향후 사망자 급증 우려도 부담. 실제 전일 사망자수가 2 천 8 백명을 상회한 가운데 CDC 는 연말까지 사망자가 33 만명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 여기에 화이자(-1.74%) 백신 공급 축소 소식은 장 마감 앞두고 상승분 반납 원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696.22	+0.76	홍콩항셍	26,728.50	+0.74
KOSDAQ	907.61	+0.92	영국	6,490.27	+0.42
DOW	29,969.52	+0.29	독일	13,252.86	-0.45
NASDAQ	12,377.18	+0.23	프랑스	5,574.36	-0.15
S&P 500	3,666.72	-0.06	스페인	8,200.70	-0.24
상하이종합	3,442.14	-0.21	그리스	766.82	+0.97
일본	26,809.37	+0.03	이탈리아	22,007.40	+0.1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기술주 부진 Vs. 레저업종 강세

보잉(+5.96%)은 라이언 에어가 737 맥스 75대 추가 구입 발표에 힘입어 급등했다. 델타항공(+4.58%), 아메리칸 에어라인(+8.28%) 등도 급등했다. 여기에 추가 부양책 합의 기대가 높아지자 라스베가스 샌즈(+1.82%), 카니발(+8.13%) 등과 리츠회사인 SPG(+2.73%)와 셰일 오일 기업인 코노코필립스(+3.08%), 옥시덴탈(+3.15%) 등도 강세를 보였다. 테슬라(+4.32%)는 골드만삭스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 소식에 급등 했으나 같이 상향 조정된 포드(+0.11%), GM(-1.10%)는 보합권 등락에 그쳐 수급의 집중화 영향이 컸다. 클라우드 관련 기업인 스노우플랙(+16.13%)과 사이버 보안 회사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13.64%)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 기반해 급등했다.

반면, 페이스북(-1.97%)은 다음주 주 정부들이 독점금지 위반 혐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이 여파로 알파벳(-0.17%), 아마존(-0.52%), MS(-0.52%), 애플(-0.11%) 등도 약보합권을 보였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스플렁크(-23.25%)와 유통업체 크로거(-4.37%)는 부진한 실적 발표로 급락했다. 코스트코(-2.46%)는 11월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다는 소식으로 하락 했으며 월마트(-0.81%), 타겟(-0.84%)등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장 마감 직전 화이자(-1.74%)는 공급망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모더나(+10.23%)는 급등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28%	대형 가치주 ETF(IVE)	+0.24%
에너지섹터 ETF(OIH)	+1.67%	중형 가치주 ETF(IWS)	+0.49%
소매업체 ETF(XRT)	+1.00%	소형 가치주 ETF(IWN)	+0.56%
금융섹터 ETF(XLF)	+0.03%	대형 성장주 ETF(VUG)	-0.05%
기술섹터 ETF(XLK)	-0.06%	중형 성장주 ETF(IWP)	+0.7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53%	소형 성장주 ETF(IWO)	+0.59%
인터넷업체 ETF(FDN)	+0.45%	배당주 ETF(DVY)	+0.28%
리츠업체 ETF(XLRE)	+0.74%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7%
주택건설업체 ETF(XHB)	+1.9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72%
바이오섹터 ETF(IBB)	+1.00%	미국 국채 ETF(IEF)	+0.27%
헬스케어 ETF(XLV)	-0.13%	하이일드 ETF(JNK)	+0.06%
곡물 ETF(DBA)	-0.26%	물가연동채 ETF(TIP)	+0.28%
반도체 ETF(SMH)	-0.04%	Long/short ETF(BTAL)	-0.4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87.34	+1.07%	-2.15%	+28.59%
소재	440.76	-0.68%	-1.56%	+7.55%
산업재	742.89	+0.27%	-1.00%	+10.72%
경기소비재	1,276.47	+0.11%	-0.06%	+3.19%
필수소비재	687.61	+0.06%	+0.06%	+4.06%
헬스케어	1,294.77	-0.17%	+2.71%	+1.34%
금융	474.69	+0.01%	+0.25%	+16.51%
IT	2,191.59	-0.10%	+2.27%	+6.04%
커뮤니케이션	220.87	-0.40%	+2.42%	+6.19%
유틸리티	318.69	-1.10%	-2.12%	-1.48%
부동산	227.78	+0.73%	-0.17%	+3.0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에 의한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5% MSCI 신흥 지수 ETF 는 1.15%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092.7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외국인이 현, 선물을 통해 매수세가 유입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최근 매수세를 집중했던 반도체 업종 일부를 매도하고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순매수한 점이 특징이다. 한국 증시는 이러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군이 대형주 위주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속 강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종목군의 경우는 매물이 출회되는 등 종목장세가 지속되었다.

한편, 국제유가가 OPEC+ 회의에서 1 월부터 3 월까지 매월 하루 평균 50 만 배럴씩 증산한다고 발표했으나 상승세를 유지한 점은 외국인의 수급에 긍정적이다. 여기에 달러화가 브렉시트 협상 기대로 강세를 보인 유로화와 파운드화 영향으로 2 년내 최저치를 기록한 점도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이 기대되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에 따라 변화하는 종목 장세를 예상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고용지표 개선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78.7 만건)이나 예상(78 만건)을 하회한 71.2 만건을 기록했다. 4 주 평균은 지난주(75 만 750 건) 보다 감소한 73 만 9,500 건을 기록했다. 연속 신청건수는 608.9 만건에서 552 만건으로 감소했다.

11 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56.6)이나 예상(56.0)을 소폭 하회한 55.9 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수주(58.8→57.2), 활동지수(61.2→58.0) 등은 부진했으나 고용지수(50.1→51.5)는 개선 되었다.

11 월 대량 해고지수는 전월의 8 만 666 건 보다 감소한 6 만 4,797 건을 기록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화 2 년내 최저 지속

국제유가는 미 의회의 부양책 합의 기대와 달러 약세에 기반해 상승 출발 했다. 더불어 미국이 사우디로부터 원유 수입 규모가 35 년내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상승 요인이었다. 이는 재고 감소 기대를 높였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OPEC+ 회담 결과 1 분기동안 매월 하루 평균 50 만 배럴씩 증산을 발표하자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다. 한편, OPEC+에 포함이 안된 노르웨이의는 올해 말 감산 종료를 발표했으나 영향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미국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유입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여기에 유로화가 ECB 의 부양책과 백신에 대한 낙관론으로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이번 주 브렉시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가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0.2% 강세를 보인 가운데 멕시코 페소, 브라질 헤알화, 호주달러, 캐나다 달러 등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고용지표 개선 불구 추가 부양책 협상 관련 소식을 기다리며 하락했다. 특히 합의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안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상원이 크리스토퍼 월러를 연준 이사로 승인했다는 소식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월러는 가장 비둘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스승이자 연준의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비둘기적 성향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금은 달러 약세 및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속 0.6%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슈 부각으로 혼조세로 마감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6%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WTI	45.64	+0.80	-0.15
브렌트유	48.71	+0.95	+1.93
금	1,841.10	+0.60	+1.65
은	24.137	+0.24	+2.95
알루미늄	2,028.00	-1.31	+2.63
전기동	7,674.50	+0.02	+3.67
아연	2,756.00	+0.31	-0.16
옥수수	426.50	+0.65	-0.23
밀	584.50	-0.68	-2.01
대두	1,168.25	+1.32	-1.33
커피	120.05	+0.80	+2.48

주요 통화	종가	D-1(%)	D-5(%)
Dollar Index	90.678	-0.48	-1.43
EUR/USD	1.2149	+0.28	+1.98
USD/JPY	103.84	-0.56	-0.40
GBP/USD	1.3462	+0.73	+0.78
USD/CHF	0.8908	-0.42	-1.79
AUD/USD	0.7444	+0.38	+1.11
USD/CAD	1.2862	-0.43	-1.19
USD/BRL	5.1585	-1.40	-3.26
USD/CNH	6.535	-0.13	-0.53
USD/KRW	1097.00	-0.35	-0.69
USD/KRW NDF1M	1092.70	-0.70	-1.24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911	-2.48	+2.96
한국	1.657	-1.80	0.00
일본	0.026	0.00	0.00
독일	-0.556	-3.70	+3.20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스페인	0.069	-3.20	+2.00
포르투갈	0.031	-3.20	+2.50
그리스	0.628	-6.10	-3.70
이탈리아	0.601	-3.00	+0.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